

팬그래프 “우리가 류현진을 과소평가했었다”



▲ 류현진. 사진=mlb.com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가 류현진(33,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활약에 주목했다.

지난 23 ‘OSEN’에 따르면 팬그래프는 전날 “아메리칸리그의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은 이미 사실상 끝난 것과 마찬가지다. 가을야구에 나서는 8개 팀 중에는 놀랍게도 토론토가 포함되어 있다. 토론토는 2004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둔 바로 다음해에 포스트시즌에 나서게 됐는데 이는 에이스 류현진의 활약 덕분이다.”라며 류현진의 활약을 조명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류현진의 부상 이력과 나이 때문에 대형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며 대형 계약했다.

팬그래프는 “류현진의 계약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계약이었다. 그는 이제 33세 시즌을 시작했는데, 4년은 어떤 투수든 부상 위험과 기량 하락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이다. 류현진은 이미 하락세가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며 “우리는 지난 겨울 류현진의 계약 규모를 3,200만 달러로 예상했는데 이는 실제 계약 규모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현진의 미래에 부정적이었던 팬그래프이지만 올 시즌 류현진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류현진은 지난 22일 현재 올 시즌 11경기(60이닝) 4승 2패 평균자책점 3.00으로 1선발로서 부족함이 없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팬그래프는 “토론토가 류현진 계약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직 3년 6,0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는 분명 만족스러운 활약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 가장 성공한 FA 투수 중 한 명”이라고 평하며 “토론토는 류현진 선발등판 경기에서 8승 3패를 기록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20승 23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라며 토론토 선발진에서 류현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벤투 VS 김학범 10월 중 두 차례 맞대결



▲ 사진=대한축구협회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이 오는 10월 9일과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두차례 맞대결을 펼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2일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의 경기가 다음달 9일과 12일 오

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며 “공식 명칭은 ‘2020 남자축구대표팀vs올림픽대표팀 친선경기’”라고 밝혔다.

두 팀간의 맞대결은 당초 9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가 코로나19로 인해 9월 A매치 기간을 2022년 1월로 변경하면서 10월로 연기됐다. 축구대표팀이 코로나19로 9월 A매치를 치를 수 없게 되면서 두 팀의 맞대결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이벤트 경기에 ‘기부금 쟁탈전’이란 콘셉트를 더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기부금 1억원을 마련했고, 이 금액은 승리팀의 이름으로 기부된다. 양 팀은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 뒤 합산 스코어-원정골 우선 원칙을 따져 승부를 가린다.

두 팀간의 친선경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지 않는 한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코비치, 랭킹 연속 1위 기록 페더러 턱밑까지 추격



▲ 노박 조코비치. 사진=ATP Tour 홈페이지 화면 캡처 편집

최근 이탈리아오픈(마스터스 1000시리즈)에서 우승한 노박 조코비치(1위, 세르비아)가 지난 21일 발표한 ATP 랭킹에서 누적 287주 1위를 달성하여 피트 샘프라스(은퇴, 미국)의 286주 1위 기록을 넘어섰다. 이는 로저 페더러(4위, 스위스)의 310주 1위 기록 다음으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3일 ‘테니스코리아’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이 결과에 대해 “샘프라스는 어릴 적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을 넘은 것은 엄청 특별하다. 이렇게 여러 주 동안 1위를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증명해준다.”며 “페더러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다. 이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코비치가 페더러의 기록을 넘기 위해서는 24주가 남았다. 그가 만약 1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내년 3월 8일 페더러를 넘게 된다.

현재 조코비치는 현재 포인트 11,260점으로 ‘현 세계 랭킹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 9,850점)을 1,410점 차로 앞서고 있다.

또 연속 기간 1위 기록도 페더러가 237주로 1위다. 조코비치는 122주로 4위, 샘프라스는 102주로 5위에 랭크되어 있다.

한편 조코비치는 현재 강력한 라이벌인 페더러와 나달에 대해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 이 시점이 테니스 역사상 최고의 시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두 사람과 함께 같은 시대의 일원이 되어 감사하다. 페더러가 건강히 복귀하면 내년에 더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주정부 면허회사
 CA Lic #:1051205

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문

부엌 화장실 수영장 리모델링
 조경 & 페이버 공사 전문

전기/플러머/타일 25년 이상 풍부한 경험!!! 최고의 기술력 & 정직한 회사

Pine Tree Construction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